

독립정신

2017. 1, 2 통권 91호

권두언_트럼프와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

특별좌담회_촛불시위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

친일파와 그 후손들(12)_

한국의 대표 재벌 삼성에 흐르는 친일의 피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

어진이 세상 꿈꾼 “김윤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상하이)



이 청사는 미주 대한인국민회가 모금한
독립 의연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역대 의장 (1919~1945)



이동녕(제1·12·15대)



손정도(제2대)



홍진(제3·17·20대)



김인전(제4대)



조소앙(제5대)



장봉(제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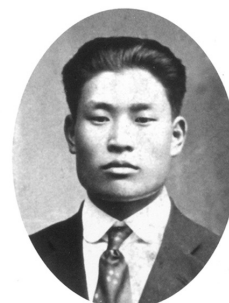
윤기섭(제7대)



조상섭(제8대)



여운형(제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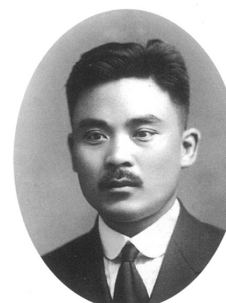
최창식(제10대)



송병조(제11·16·19대)



이각(제13대)



김봉준(제14·18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다. 임시의정원은 3.1운동으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헌법을 제정한 대의기관이었고, 동시에 의회 중심 체제로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구심체이기도 하였다. 독립운동을 위하여 망명한 13도 대표 29인이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독립정신

2017 1*2

통권 91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04519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11

04 권두언
트럼프와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
| 김종철



23

08 특별 좌담회
촛불 시위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
| 연성수 · 정근식 · 이두엽



24

16 친일파와 그 후손들(12)
한국의 대표 재벌 삼성에 흐르는 친일의 피
| 최광웅

19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어진이 세상 꿈꾼 “김윤경”
| 이윤옥

21 영화읽기
영화 <설리>
재난 앞에 흔들리는 삶
| 이두희

25 임정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개정판)
보재 이상설 평전
특종 1987
| 편집부

34 독립정신 이모저모



34



35



38

트럼프와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



김 종 철
녹색평론 발행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월 20일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 이틀 뒤 서구식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서구식 민주주의는 역사를 통해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힘으로 공인돼 왔지만, 이제 그것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것은 자본가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되었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즉, 도널드 트럼프라는 자질이 극히 의심스러운 인물이 세계 최강의 국가 최고 통치자로 선출되는 ‘그로테스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을 이 신문의 필자는 이 기회에 중국식 정치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시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최선의 증거”라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인민일보>의 논리대로 중국의 정치제도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정말 더 나은 제도인지,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얼마만큼 사회주의나 마르크시즘의 정신에 충실한 사회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중국식 정치시스템이 단지 미국식 민주주의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떨어졌다’고 보는 편견은 버릴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정치는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기본적으로 정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중국이 집단지도체제, 즉 1인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합의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공화주의를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국은 100년 이상의 굴욕과 시련을 거쳐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이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막대한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조만간 미국에 필적하거나 혹은 능가할지 모른다는 예측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과연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은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방식을 별로 벗어난 게 아니었다. 그리하여 중국도 서구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서 자원과 시장을 대규모로 확보하려 함으로써 도처에서 자연파괴와 자원고갈화 현상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따져보면, 중국도 세계자본주의의 일부인 이상, 현재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이런 현실에서, <인민일보>의 필자가 자부하듯이, 오늘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데 중국식 정치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미국식 민주주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게 분명한 오늘날, 중국식 시스템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트럼프의 등장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부호일 뿐, 인간적 교양도 시민적 윤리도 완전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평화학자 요한 갈통의 말처럼, 명백히 미국의 쇠퇴를 알리는 신호이다. 선거에서는 상대가 누군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학식이나 지식, 공직 경험이 풍부한 인물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결국 패했다. 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식 선거 민주주의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인 절대다수가 가장 혐오하는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난데없이 등장하여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트럼프를 훨씬 능가하는 힐러리는 미국의 기성지배체제, 즉 군산복합체와 너무나 깊이 이해관계를 같이해 온 전력 때문에 정치적 위선과 부패를 청산하고 미국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심각한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프러프와 공화당의 정책을 결코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힐러리를 찍기 위해서 투표장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을 느낀 사람들이 허다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백인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지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보다는 힐러리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그리하여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등 사회적 소수파들,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은 대개 투표를 하지 않거나, 일부는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2억이 넘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트럼프가 받은 표는 겨우 25퍼센트였고, 기권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즉, 부유층과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성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불만과 불신이 지금 미국사회에 만연돼 있고, 그 결과 트럼프라는 정치적 아웃사이드가 대통령에 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원래 건국 당시에 설계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층 위주로 설계된 측면이 강했으나 200년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쨌든 민주주의가 확고해졌다는 믿음이 광범하게 유포되어왔다. 그런데 어째서 이제 와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혹은 환상)이 산산이 깨져버렸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원래 반민주성이 내포된 시스템이었다. 그럼에도 그게 그런대로 작동해온 것은 크게 보면 경제가 ‘성장’을 계속해왔던 덕분이었다. 성장의 혜택은 불평등하게나마 하층민에게까지 미치고 그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 경제성장의 가장 확실한 지표는 금리일 것인데, 지금처럼 저금리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회복의 전망 없이 장기화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던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불가결한 ‘변경’(비자본주의적 영역)이 거의 다 소멸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확장되지 않으면 존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신자유주의는 이 변경의 소멸을 경제의 ‘금융화’로 극복하려는 시도였지만,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그 ‘금융화’는 극소수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화로 귀결되고, 정치는 거의 전적으로 부유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돼버렸다.

그러나 경제성장 시대가 끝나는 것은 지구의 생물물리학적 조건으로 볼 때도 필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환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생태계에서 직선적인 무한성장의 추구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현대문명의 핵심적인 기반인 석유자원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학은 가격과 돈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경제현상을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는 물자와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할 때, 지금 나날이 고갈되고 있는 석유문제는 결정적인 성장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년에 들어 <자본주의는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2016)라는 책의 저자 볼프강 스트레크를 비롯하여 점점 많은 정치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의 종말을 단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우려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트레크는 고대 로마가 망하고 중세체제가 성립하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듯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체제가 수립되기까지 인류는 긴 ‘공백기간’의 혼돈과 시련과 고통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여기서 많은 학자·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다.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혼돈에 빠질수록, 그리하여 (최근 작고한 사회사상가 지그문트 바우만의 표현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지뢰밭’에서 살지 않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선거 도중 공언했던 대로 난폭한 행동에 들어갈 태세이다. 그는 국무장관으로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세계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기후변화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화석연료자원을 거침없이 개발하여 ‘변영’을 회복하겠다는 배타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점에 한정하여 보면, 트럼프의 국가운영은 종래의 미국 주류 정치의 방식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이 종전과 다른 낯선 미국이 될 거라는 예측은 별로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과 다른 것은 트럼프의 통치방식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성장이 끝난 엄연한 시대상황을 망각하고 ‘위대한 미국’의 부흥을 분별없이 강조하는 트럼프의 어리석음 때문에 온 세계가 더욱 넓고 깊은 ‘지뢰밭’이 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 위 글은 2017. 01. 27일자 한겨레신문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기사를 필자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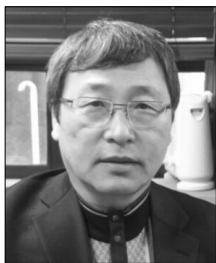
촛불 시위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

○ 참석자



연 성 수

(2017 민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 근 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통일평화연구원장)



이 두 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전주대 객원교수/사회)

○ 일 시 : 2017년 1월 12일(목)

○ 장 소 : 본회 회의실

○ 정 리 : 안효진 간사

이 두 엽 :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광화문 촛불 집회를 보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느꼈고, 그 배경에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적폐의 뿌리가 친일 청산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친일청산과 독립정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두 분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연 성 수 : 2017 민주평화포럼 공동대표 연성수입니다. 1986년도 故김근태 선생과 민주화 운동청년연합을 결성하여 광주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독재 청산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정 근 식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을 지내고 있는 정근식입니다. 1985부터 18년간 전남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로 옮겨왔습니다. 근래에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한국의 남북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남북통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아직 혁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혁명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 혁명이 갖는 의미에 대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연관 지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침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두 엽 : 감사합니다. 연성수 위원장님께서 손바닥 헌법책 운동을 주도하셨고 계속 진행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전개하셨는지요?

연 성 수 : ‘국민들이 쉽게 헌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2016년 3월 초부터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보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달 만에 20여 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지요. 이를 통해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주권자는 국민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치 몇몇 소수들이 주권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남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누구의 것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책 읽기 운동을 해보았더니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더군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는 곧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 라며 자신의 권리에

대해 깨달은 것이지요. 이것이 촛불집회를 만나면서 전 국민에게 퍼졌고, 국민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촛불 시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유행했던 말이 국민주권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보니,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3조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정 근 식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주 공화국이라는 이념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1948년 정부가 들어서고, 제정된 헌법에서도 임시정부의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4월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지금은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념이 촛불 혁명을 통해 전 국민이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성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든 주권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촛불 혁명입니다. 따라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에 이어 2016년 촛불 혁명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엽 : 촛불을 든 국민들은 처음에 “이게 나라냐” 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많은 비판과 요구가 있었지만 특히 국정 교과서에 대한 거부도 강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나라를 가르치려고 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강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신 국정교과서나 건국절 문제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 성 수 :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은 “이게 너네 나라냐? 이건 우리나라다” 여기서 너네라는 것은 소수 특권층과 권력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는 그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이기 위해서 교과서 내용을 억지로 특권층에 맞춰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들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닌 독재 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평등한 나라인데,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소수 특권층의 전횡에 의한 불평등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근 식 :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은 지금까지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부정선거에 저항하며 나왔고, 두 번째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나왔고, 세 번째는 5.18 항쟁에서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국민 탄압에 대한 저항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뒤에 있는 비선실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대통령이 대통령 행세를 전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배경이 되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여친일파가 재생산되고, 그들이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층을 이루었던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1979년도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일종의 독버섯이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의 방식 때문에 유신체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제대로 된 청산이 없었기에 지금에 와서 이런 큰 재앙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두 엽 : 그 상징이 김기춘, 최태민과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정 근 식 :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그리고 국정 농단의 주범인 최태민의 딸 그들을 이어주는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그 상징이 되겠지요.

연 성 식 : 촛불 집회 때 이은미라는 가수의 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부터 청산의 시작이다!” 라는 멘트에 공감했습니다. 가깝게는 이명박, 박근혜 적폐 청산인 것일 테고, 이재명 시장은 1970년대 적폐 청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넘어가면 1919년 3.1 운동이후부터 쌓인 적폐 청산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만의 국민들이 모인 이유는 그냥 정권을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쌓인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엽 : 2차 대전 종전 후, 프랑스 드골은 나치 부역자 2만 명을 넘게 처단하면서 “오늘의 처단으로 인해 앞으로 프랑스에는 민족 반역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친일 부역자 청산에 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근 식 : 1945년 당시에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로부터 60년 후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간 친일파인명사전과 친일파 재산환수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이두엽 선생 말대로 ‘친일파에게 죽음!’ 이와 같은 청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박정희의 독재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1980년대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군부 정권 등장으로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100년 적폐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70년대 적폐 청산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단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 대부분이 적어도 최소한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유신 체제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좀 더 생생한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70년대 적폐를 청산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 성 수 : 한국은 주변국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 문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민주 정부가 들어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박근혜 정권을 끝내고, 민주 정권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는 승리감과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폐 청산 첫 번째는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촛불 집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3.1운동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 한 가지 구호를 외친 시위라는 것입니다. 둘째, 모인 인원이 모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기록을 보면 젓먹이와 노인들 빼고 모두 다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 때는 젓먹이와 노인들, 청년, 청소년 등 모두 나왔습니다. 셋째,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선 민주 정부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수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이 두 엽 :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 시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건국절 제정은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독립운동사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 근 식 : 중국 시안과 연안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동아시아사를 가르칠 때 신화나 전설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생생한 역사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 방치되어 있는 고구려 역사의 흔적을 보며 향후 통일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필요로 하는 역사의 현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사 교육은 현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교육을 할 때에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적 현장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혹은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교육과 학교 교육 및 기타 시민교육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 성 수 :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이야말로 가장 좋은 민주 시민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등학교 3학년 딸에게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묻자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딸 뿐만 아니라 ‘역사의 현장인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신의 자식들에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직접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을 거대한 시민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임정기념사업회에서 작은 기념물을 만들고, ‘촛불 집회와 임시정부의 꿈’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1919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명시한 것들임을 알려주고, 이제야 진정한 민주 공화국 수립을 위해 비약하는 첫 걸음을 뗐음을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촛불 시민과 함께 하는 임시정부 현장답사와 같은 촛불과 연계한 임시정부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엽 :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세상은 임정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데, 오늘날 촛불 민심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근 식 :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촛불을 든 국민들 간의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졌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쳐서는 분열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민주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촛불을 들고 맞서 싸운 주역이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화해와 신뢰야말로 이상적인 민주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립과 반목을 일으킨다면 현재 우리의 염원이 신기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 성 수 :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2017년을 관통할 핵심은 ‘공정과 소통, 안전’ 이렇게 3개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올 초에 경향신문에서는 소통과 통합이 1위로, 정의가 2위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국민들은 공정한 나라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통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주권주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정권 교체를 통해 제대로 된 민주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잘하면 천만 국민이 지지 할 테고, 못하면 당장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연합하여 민주 정권 수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소통과 통합의 핵심 고리로 국민 자치권을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발언권을 높이고, 잘못된 정책이 있을 시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이 잘못했을 경우 국회가 끄집어 내릴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입법을 잘못할 경우에는 국민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뿐인 것입니다.

국민자치권 다시 말해 국민발언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엽 : 백범 김구 선생이 1948년 3월 1일에 쓴 ‘양심건국’ 휘호가 생각납니다. 근본이 무너졌다는 비통한 심정으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 근 식 : 다음 대통령은 높아진 국민 의식과 많은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방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민들과 정치권 모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보수 정권에서 행했던 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 성 수 : 촛불 집회 주장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나라냐’에서 시작하여 ‘박근혜 하야’, ‘박근혜 구속’, ‘부역자 처벌’, ‘적폐 청산’, ‘개혁 입법’ 이렇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의 한 여고생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 땅의 최순실은 한 명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다. 그 많은 최순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촛불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50대 아주머니는 “최순실은 내 안에도 있다. 내 안의 최순실까지 몰아내지 않는 한 이 땅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들 열심히 노동해서 번 재화에 대해 나누지 않고 혼자 독점하겠다는 사고를 대다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기 정권은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로 인한 동아시아 관계의 요동 속에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야 합니다. 즉, 강력한 지도부를 수립하고 이에 국민들이 온 힘을 쏟아 부어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합심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정 교수님 말처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함이 중요하며, 공정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기심과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 집회는 단순히 정권 퇴진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혁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부의 최순실류를 깨야 할 것입니다.

정 근 식 :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법꾸라지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법망을 회피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법과 관련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촛불 집회의 민심을 잘 읽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이 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됐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트 사회에 대한 자정 능력이나 국민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욱 건전해지고 올바르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엽 :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대표 재벌 삼성에 흐르는 친일의 피



최 광 응
데이터정치연구소장

또 다시 삼성그룹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중 204억원이 삼성그룹에서 나왔다. 그만큼 삼성은 막강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에 220억원대 지원 계약을 하고 80억원대 집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원의 별도 후원도 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계기였던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게 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난해 10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내이사로 정식 등재되면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다.

삼성은 구직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직장이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상징이다.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검은 고리를 통해 부를 축적해온 어두운 역사를 안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재벌) 현황을 보면, 자산 총액 5

조원 이상이 모두 65개이다.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는 총 1736개, 자산은 233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굴지의 삼성그룹은 348조원의 자산으로 15% 비중을 점유한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19.4%(272조원)이고 영업이익은 무려 34%(19조원)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세계 IT기업 중 매출액 1위이자 브랜드 가치 세계 7위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은 국내 기업 중 2012년 처음으로 매출 300조원을 돌파했고,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진화했다. 30년 전인 1987년 매출액은 겨우 13조 5000억원, 시가총액은 1조원에 불과했다. 이병철 회장이 유명을 달리한 그해 삼성은 비로소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2017년은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 설립 80년을 맞는 해이다. 이병철 초대 회장이 1938년 3월 1일 자본금 3만원(현재 시가 약 36억원)과 직원 40명으로 청과물과 건어물을 만주에 수출하고 제분업을 병행하는 등 꽤 큰 상점을 대구에 오픈한 것이 효시다. 처음 설립할 때 상호는 스타-였으나 1938년 9월 23일 동아일보 1면을 보면 미쓰보시(三星)으로 사명을 바꾼다는 광고를 낸다.

1년여 만에 자리를 잡은 이병철은 이듬해 조선인 최초로 청주회사인 조선양조를 인수했다. 대금은 10만원, 현재 시가로 약 120억원의 거액이었다. 당시 조선양조에서 생산된 청주의 무려 95%가 만주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군수품으로 납품되는 상태였다. 이병철의 자서전인 <호암자전> 사진 중에도 '군수지정공장'이라는 팻말이 보이듯이 조선양조는 일제의 군수지정공장이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일제의 군수지정공장으로 사업을 확장한 이병철,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공식 친일파 지정은 하지 않았으나 그의 행적은 친일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편 당시 조선양조 바로 옆에는 일본 군수국 본실 사무소가 있어서 일제의 3대 군수재벌 중 하나인 미쓰이(三井) 그룹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유추된다. 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48년 이병철은 미쓰이(三井) 물산을 모델로 하여 삼성물산공사를 세우고 무역업을 시작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부산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광복 직후 이병철의 사업 자금은 '적산' (일본인들이 남긴 재산)과 미국의 원조금에서 나왔다. 당시 적산은 국내 총자본금의 90%나 됐다. 이승만은 정권과 결탁한 친일자본가 등에게 일방적으로 적산 불하와 원조자금을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이병철은 발 빠르게 변신, 축재 기반을 쌓았다.

이병철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제일제당을, 이듬해 제일모직 등을 잇달아 설립하며 그룹 면모를 갖췄다.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이 바로 이승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적산과 원조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신세계 역시 적산인 동화백화점을 헐값에 불하받은 회사다.

홍업은행주 83%, 조흥은행주 55%, 상업은행주 50% 등 전체 시중은행 주식의 50%를 손에 넣은 이병철은 부패한 이승만 일당과 유착했으며, 3·15 부정선거에도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이병철은 185명의 사망자를 불러온 4·19 혁명 발포명령 책임자인 내무장관 홍진기를 면회 다녔고 5·16 쿠데타 이후 사형선고를 받은 그를 군사정부에 힘을 써서 사면되도록 했다. 이병철은 3남 건희와 홍진기의 장녀 라희를 결혼시켜 사돈관계를 맺었다. 홍진기에게는 1964년 중앙라디오방송 사장을 맡겼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권도 부정축재자에게 공장을 건설해 그 주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공포해 면죄부를 제공했다. 1966년에 폭로된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이 얼마나 파렴치한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삼성은 비료공장 건설자재라고 속여 한국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만을 골라 밀수입해 무려 2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암을 유발하는 사카린을 비롯해 표백제, 전화기, 수세식 변기, 욕조에 이르기까지 1만여 가지가 밀수 품목이었다. 김대중 의원이 1966년 9월 국회에서 이병철의 구속을 주장했고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한 이병철은 “건설 중인 한국비료를 국가에 바치는 동시에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하던 이병철은 220억원을 바치며 확실하게 보답했다. 이병철은 죽기 직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편법상속을 저질렀다. 1987년 이병철은 치밀한 공작을 꾸며 당시 자산총액 11조원의 그룹을 단돈 1백50억원의 세금만 내고 3남 이건희에게 승계시켰다. 30년 후 오늘 손자 이재용의 모습이 정확하게 오버랩 된다.

이병철의 사돈이자 이재용의 외조부인 홍진기는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2년 경성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때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그 경력 때문에 200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대한민국 최고기업에 친일의 피가 흐르고 있음은 불행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불법 탈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에서 정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진이 세상 꿈꾼 “김윤경”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똥단배 몸 기대어
황포강 건널 적에
고이 품었던 꿈

인성학교서
다진 나라 열

동포들 가슴에
불씨 지퍼

이역 땅서
훨훨 타올라
꺼지지 않는 횃불로

조국을 비추었네.

김윤경(金允經, 1911. 6.23~1945.10.10.) 애국지사

김윤경 애국지사는 백범 김구 선생과 같은 고향인 황해도 안악(安岳) 출신으로 일찍이 부모와 함께 중국 땅으로 이주하여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서 보냈다. 1924년 8월 15일부터는 상해 프랑스조계(租界)에있는 백범 집에 살면서 임시정부에서 만든 인성(仁成)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가들의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직, 간접적으로 몸에 익힌 김윤경 애국지사는 열아홉 되던 해인 1930년 8월에 여성들의 독립운동 단체인 상해한인여자청년동맹(上海韓人女子靑年同盟)에서 위원장으로 뽑혀 여성 항일운동의 선두 주자로 뛰었다. 이후 남경과 중경 등지로 활동무대를 옮겨가며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뒤에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1945년 10월 10일 이국땅에서 3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시집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 전6권,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 『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FLOWERING LIBERATION -41 Women Devoted to Korean Independence』 등이 있으며 친일파자시집 『사쿠라 불나방』과 우리말 속의 일본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혼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외 다수. 



영화 <설리>, 재난 앞에 흔들리는 삶



이 두 희
자유기고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설리 : 허드슨강의 기적 Sully>(2016)는 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구나디아 공항을 이륙한 후 수 분만에 기체 이상으로 허드슨 강에 불시착 한 US 에어웨이즈 1549편 사고를 다룬 영화이다. 우리에게 이 영화는 국가적 재난으로서 세월호 사고의 아픈 기억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최근의 국내외 정치사회적 맥락에서도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있다.

영화의 이야기는 항공기 기장 설리의 시선에서 진행된다. 영화는 사건 당일 사고 전후로 그가 겪었던 일들과 함께 이후 국가운수안전위원회의 사고 조사 일정에 출석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하지만 이야기의 긴장감은 비상착륙 현장의 급박함에만 있지 않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설리가 회항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비상착륙을 한 것은 아닌지 혐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리는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며 치켜세우지만, 정작 설리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고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영화 속에서 설리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경력과 함께 가족과의 안정된 노후를 모두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사고 당시 자신의 판단이 과연 최선이였는가를 스스로



의심하는 전문가적 회의의 자세를 지킨다. 영화를 보는 우리는 자신의 권한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는 리더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리에게서 찾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그러한 리더십과 조직의 부재를 뼈아프게 실감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화 <설리>에 대한 많은 언론 기사와 관람 후기들에는 모두 세월호 사고에 대한 그림자를 적잖게 드리우고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가던 도중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여객선은 전라남도 진도 부근에서 갑작스레 항로를 잃고 선체가 기울다가 곧 침몰하기 시작했다.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본 비극적인 사고였다. 무엇보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난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것이 기성세대에게 더욱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이나 미흡한 구조 과정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부실한 안전 관리와 방만한 감독 기구부터, 이해득실만을 우선시했던 해운사와 승객들에게 끝까지 무책임했던 승무원들, 그리고 긴급한 상황 앞에 무력했던 구조본부의 지휘력과 면피만을 신경 쓰던 관료기구의 의사결정체계까지 드러난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재난에 다름없었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의 목소리는 높다.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정의의 구현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팽배해진 불신과 음모 이론에 기댄 정치적 공방으로 질곡 되기도 하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세월호라는 사회적 트라우마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세월호 사고는 아무런 여과 없이,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되돌아온 우리 사회의 민낯이었기 때문이다. 영화 속의 영웅은 현실의 우리에게 없었다.

하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영화 속 설리 기장을 단순히 이상적인 영웅상으로 볼 수만은 없을 듯하다. 영웅이라도 역시 시대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스트우드 감독은 1960년대 서부영화의 고독한 총잡이 배역으로 영화 경력을 시작하여, <더티 해리> 시리즈에서 정의로운 고집불통 경찰 등 강한 남성적 이미지가 돋보이던 배우였다. 동시에 일찍이 감독으로 데뷔하여 지금까지 40여년에 걸쳐 다양한 장르에서 배우와 연출 경력을 쌓아오면서 헐리우드의 베테랑이 되었다. 특히 여성 복서를 주인공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을 그린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2005)를 비롯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섬세한 연출과 함께 현대 미국 사회에 대한 자기 성찰을 담은 영화들을 통해 영화적 전성기를 다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스트우드의 영화들에는 감독 본인의 완고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항상 두드러진다. 주로 집단과 시스템에 대비되는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관료주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판단과 책임의 중요성 등을 역설하는 부분들이다. 영화 <설리>에서도 주인공과 위원회의 갈등 밑에 드러나는 주제 의식은,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까닭은 시스템의 허울 좋은 외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개개인의 힘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우드 감독이 전통적으로 연방제를 통한 분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재량에 더 무게를 두는 공화당의 당원이자 보수주의자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실제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작년 미국 대선시기 전후에 걸쳐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트럼프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진영의 차이로부터 그는 물론 그의 영화들에 대한 재평가나 비판이 일부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의 영웅이었던 저격수 크리스 카일의 생애를 그린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2014) 역시 관객들의 입장에 따라서 호불호는 물론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해석이 가



▲ 영화 <설리> 중에서



능한 영화였다. 하지만 영화를 진영 논리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평가하는 것만큼 메마른 척도는 없을 것이다. 영화를 둘러싼 담론에 어떤 대립과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의 위기의식을 반영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위기와 재난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일까.

이스트우드의 많은 영화들은 과거의 영광으로부터 소외된 현실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향수적인 감성에 젖을 때가 많다. 그리고 수 십 년에 걸쳐 주름이 늘어나는 그의 얼굴과 노쇠해가는 몸을 스크린에서 지켜봄으로써 관객들 역시 그러한 노스탤지어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모든 시대는 나름의 성과와 과오를 남기고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공과로부터 더 나아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세계의 지속가능성조차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진국가들은 부의 편재와 양극화 문제를 넘어서기도 전에 금융 시스템의 위기와 성장의 정체라는 벽에 부딪혔고, 개발국가들은 정치경제적 내홍을 겪으며 종교적 민족적 갈등들은 분리주의와 테러 사태로 비화하였다. 국경을 넘어서는 난민들처럼 안전지대의 경계는 이제 남아 있지 않다. 기우라고 여겼던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미 역사적으로 청산되었다고 생각했던 극우적인 자국우선주의마저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재건과 희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비단 진보진영이나 보수진영 양쪽 모두 근심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영화 <설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너지는 세계를 구원할 영웅의 재림이 아니라, 차라리 불시착한 현실에 함께 책임을 지는 누군가를 찾는 한 늙은 보수주의자의 안타까움과 측은함일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난과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 그 앞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세계를 지탱해줄 가치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대립과 갈등에 근거한 선동과 영합에서 손쉽게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한 과정을 감수하더라도 과거의 잘못과 시행착오들 속에서 가라앉은 교훈과 원칙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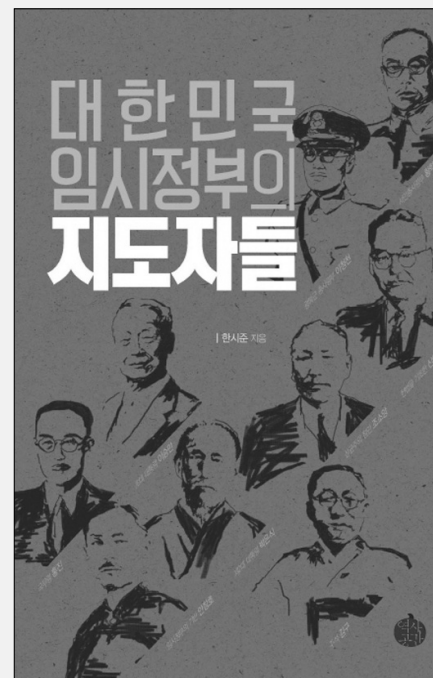


▲ 영화 <설리>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 지은이 | 한시준 • 출판사 | 역사공간 • 쪽수 | 414쪽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

‘역사의 정의(正義)’가 혼돈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 되었다거나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이 그 원천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건국’이란 문제를 부각시켜 일제에 협력하였던 반민족행위자들을 건국의 공로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또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구해온 저자 한시준의 연구 성과를 묶은 것이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 이래 제기되고 있는 ‘건국’과 ‘건국절’ 문제에 대해 역사적 근거와 논리도 없다는 점, 그리고 법률적·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왔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책을 엮어 내기로 했다고 한다.

이 책의 키워드는 ‘역사의 정의’이다. 저자는 ‘정의’를 “돌아갈 몫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건설현장에서 하루 종일 노동한 사람이 저녁에 노동한 대가로 일당을 받는 것이 정의이고, 힘 있는 깡패나 머리 좋은 사람이 일당을 가로챌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펴낸 가장 큰 이유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온 재산과 목숨을 바쳐가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사람보다, 개인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하였던 반민족행위자가 높게 평가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모두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임시정부의 기반을 마련한 홍진과 안창호를, 제2부에서는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을 지낸 이승만·박은식·홍진·김구를, 제3부에서는 임시정부에서 이론가로 역할 한 조소앙과 신익희를, 제4부에서는 한국광복군에서 총사령관으로 활동한 이청천·황학수를 다루었다.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개정판)

• 지은이 | 역사학연구소 • 출판사 | 서해문집
• 쪽수 | 512쪽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된다!
열다섯 명의 역사학자가 선사하는
한국 근현대 통사!

최근 회자되는 국정교과서 논란이나 건국절 논란으로 근현대사에 대중의 이목이 다시금 집중되었다. 이전에도 근현대사를 해석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은 많았다. 그러나 너무 가까운 과거를 단정 지어 해석할 수 없으며, ‘해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논쟁이 끝나 버리기 일쑤였다. 이처럼 근현대사는 오랫동안 역사 교육과 연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래서일까, ‘해석의 자유’라는 말을 쓴 왜곡된 역사인식의 잔재들이 최근 사회 곳곳에서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역사를 함께 해석하고, 학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6년 개정판으로 새롭게 선보이는《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는 대중과 함께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역사학자들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한국근현대사 개론서다.

최근 연구 성과와 독자 의견을 남김없이 반영한 폭넓은 해설

이번 개정판에서는 독자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보완했다. 특히



근대 4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활동’과 근대 5장 ‘깊이 보는 일본군 위안부’는 내용을 보완해 다시 서술하고, 현대 4장 ‘고난과 혼돈을 넘어’는 참여 정부까지 다뤄 내용을 현대에 맞게 보충했다. 또한 짧은 글로써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외했다.

각 강의 역시 최근 연구 성과를 참고해서 내용을 수정했으며, 참고문헌에도 이를 반영했다.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에는 따로 주석을 달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 복잡한 한자어나 근래에 들어 새롭게 개념이 정립된 단어·사건 등도 명료하게 설명했다. 사진이나 만평과 같은 이미지 자료 또한 본문에 맞는 것을 고르되, 될 수 있으면 참신한 것으로 바뀌 놓았다.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풍부한 자료와 국내외를 아우르는 세계사 연표 수록

당시의 기사 내용이나 격문, 실제 정부 기록과 보고서 등 많은 자료를 직접 인용해 서술의 객관성과 함께 흥미를 높였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담아내고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주요 장면마다 대표 사진을 수록했다. 나아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도표와 그래프를 적절하게 삽입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나라의 연표를 함께 수록해 근현대사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사정을 아우르는 연표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그저 한반도 내에서 찾으려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는 여러 사람,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얹히고설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보재 이상설 평전 - 독립운동의 선구자

• 지은이 | 김삼웅 • 출판사 | 채륜 • 쪽수 | 275쪽



기록되어야 할,
하지만 기억조차 못하는
보재 이상설의 큰 업적

보재 이상설은 교육자·독립운동가임과 더불어 절세의 경륜가였다. 국치를 당하지 않았거나 생존하여 광복을 맞아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다면 새 국가 건설에 큰 경륜을 펼쳐, 이 나라의 기틀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역사에 선명히 기록되어야 할 독립운동의 독보적인 선구자였지만, 우리는 그의 업적은 물론 이름 석 자조차 잊고 살아간다.

그럼 이상설은 도대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어떤 기여를 하였을까? 관련 자료는 많이 소실되었지만, 작은 흔적들을 모은 저자 덕분에 우리는 이 책에서 보재 이상설의 업적과 사상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다. 저자는 이상설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을사늑약 체결을 끝까지 막고자, 고종에게 ‘순사직’ 하여 조약을 파기하고 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둘째,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 기관인 서전서숙을 만들고 신학문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제2회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어 건너가,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세계 언론인들을 상대로 일



제의 만행과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밝혔으며 미주에서 애국동지대표회와 국민회를 조직하였다. 넷째, 13도 창의군을 편성하고 무력을 통해 국권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독립운동단체 성명회를 조직하고 8,624명의 서명을 받아 성명회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여섯째, 한인 독립운동단체 권업회를 창설하였다. 일곱째, 국치 후, 상하이 임시정부보다 5년 앞선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고 정통령에 선임되었다. 여덟째, 신한혁명단을 창단하고 본부장에 추대되어 마지막까지 국권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그였지만, 그의 행보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무도의 시대, 이상설의 정도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덧 보재 이상설 선생이 서거한 지도 100년이 되어간다.

25세에 조선조 최후의 과거인 갑오문과에 급제한 자질과 능력으로 보아 시대와 적당히 타협하고 이에 따라 처신하면서 살았으면 일생 평안하게 권부를 누리면서 지낼 수 있을 인물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의 후손들은 선대가 남긴 유산으로 대대로 권문세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늘 정도(正道)를 지키며 끝까지 치열하게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싸웠다. 그런데 이상설을 비롯한 여러 독립투사들이 지킨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를, 친일파의 후손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남이 세습되는 세상이다. 교과서 속 역사는 정통사가 아닌 식민지근대화론을 공인하고 친일파들의 죄상을 면탈하는 변통사로 전락하게 할 뿐이다. 이상설의 글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의 병폐를 지적한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정계에 대입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어, 그가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다면 이런 무도(無道)의 세상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그의 신념과 사상은 늘 바른 길 위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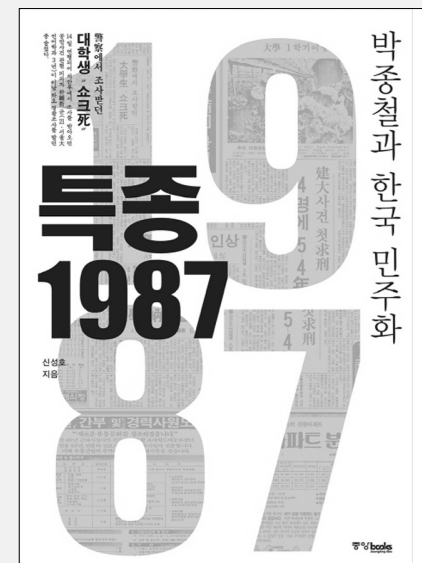
역사정의가 짓밟히는 어지러운 시국, 시대와 적당히 타협하여 편히 권부를 누리지 않고 홀연히 국권회복투쟁에 나서 해외를 떠돌며 치열하게 적과 싸워온 이상설의 정도정신(正道精神)을 되새겨 볼 때이다. 



특종 1987

- 박종철과 한국 민주화

• 지은이 | 신성호 • 출판사 | 중앙북스 • 쪽수 | 240쪽



박종철과 1987년을 기억하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7년, 22세의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죽음을 맞았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은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였던 신성호 현 성균관대학교수다. 《특종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 과정에서 언론과 기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민주화가 이뤄졌는지를 당시 취재기자의 시각으로 소개한 책이다.

단순 사건 보도에서 탐사 보도로의 첫 전환

- 서슬 퍼런 권력에 맞서 언론의 제 모습을 찾다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가 집권했던 1980년대는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일컬어진다. 대학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속이기 위해 언론 탄압 정책을 자행했다. 언론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시민들 사이에선 “가장 정확한 뉴스는 ‘대자보’와 ‘카더라 통신’ 밖에 없다”는 말이 나돌았다.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언론이 제 기능을 찾게 된 계기가 바로 박종철 사건 보도였다. 신성호 기자의 첫 보도를 기점으로 각 언론은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권력의 고



문에 의한 한 대학생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발생과 경찰 상급자들의 고문 경관 축소 조작 모의 등은 언론의 추적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한국 민주화의 새 장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1996)에서 “언론은 … 한국 현대 정치사의 결정적 계기에서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이것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증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군부 권위주의의 해체를 가져오는 데도 역시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언론의 역할은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라고 평가했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 말기였던 1987년 1월, 박종철 사건 보도는 적어도 한국의 민주화를 몇 년 앞당긴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신성호 기자의 첫 보도 후 언론은 탐사 보도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박종철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고, 이는 곧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박종철 사건과 1987년 한국 민주화

1987년을 빼놓고는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6월 항쟁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14일 일어난 박종철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고,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물론 결국 정권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은 6·29선언을 이끌어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다.

이 책은 사건을 첫 보도한 신성호 기자의 취재일지를 시작으로 마침내 6·29선언을 일궈 내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1~2장에서는 당시 긴박했던 취재 현장과 전화로 기사를 송고하고 운전기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일궈낸 첫 보도, 그리고 그 여파로 전 언론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룬다. 3장에서는 이러한 박종철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1980년대를 통틀어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탐사보도로서의 언론사(言論史)적 의미, 인권 탄압에 맞선 기자 정신, 현대 사회에서의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해외 사례와 견주어 설명한다. 이후 5장에서는 박종철 사건 보도 후 정권의 강압적 태도와 이에 맞선 언론과 시민들, 그리고 6월 항쟁이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6~7장에서는 경찰의 사건 은폐 조작과 마침내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던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또한 8~9장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종교계를



비롯한 가회 각계각층의 움직임, 경적운동과 벡타이 부대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마침내 일궈낸 6·29선언의 진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박종철 30주기, 우리에게 남은 과제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의 제목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박종철’이라고 붙였다. 22세의 청년 박종철의 죽음이 한국 민주화의 불씨가 된 지 30년이 흘렀다. 그 30년 동안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최초의 문민정부, OECD 가입, IMF 외환 위기 등 많은 일을 겪었다. 이제 민주화는 갈망의 대상이 아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다. 그에 따라 ‘박종철’이란 이름은 역사의 뒷면으로 물러난 채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지금 우리는 청년 박종철이 꿈꾸던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은 진영과 계파로 나뉘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북한의 잇따른 핵 개발은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고는 해도 오늘날을 사는 젊은이들은 ‘수저 계급론’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박종철 사건과 6월 항쟁이 30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30년 전 과거의 거울에 비춰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리 사회는 6월 항쟁 당시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인가?’

저자의 말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꿈꾸던 세상과 거리가 있다면 박종철 사건은 30년 전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박종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며, 저자가 이 책을 출간한 이유다. 

제1차 임정 아카데미 개최



1월 19일(목) 프란치스코 4층 430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1차 임정 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제1강. 국정 교과서와 “건국절”>이라는 주제로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이 시간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국절 문제와 반대 여론이 거센 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 교과서 추진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본회 회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다시 한 번 올바른 역사 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겨 보았다.

♠ 제2차 임정 아카데미 개최

1. 주 제 : 제2강.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와 남북문제
2. 강 사 : 정동영(국회의원)
3. 일 정 : 2월 16일(목) 16시~18시
4. 장 소 : 프란치스코 4층 420호
5. 참가 대상자 : 일반인 및 본회 회원 누구나 참가 가능 (선착순 60명)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접수 가능합니다. 단,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본회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2-3210-041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새해 효창원 참배



서울시교육청이 현충원 참배와 더불어 효창원 참배로 새해를 시작했다.

효창원에는 이동녕, 김구, 조성환, 차리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료,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와 안중근의 허묘가 있다.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숨을 쉬고 있는 곳이다. 의례적으로 관공서와 여야 정당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신년하례식을 시작한다. 하지만 효창원 참배는 외면되어왔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2017년부터 신년하례 행사는 용산의 ‘효창원’도 참배할 것”을 각계에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임정 각료와 열사들을 모신 이곳을 정부 기관이 지금껏 공식적으로 참배 안했다는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다”라며, 이후 지속적으로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건국절과 국정교과서 논란이 어지러운 이때, 관공서와 정당들의 용산 효창원 참배는 역사 지향과 정체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제85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



1월 8일(금)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5주년 이봉창 의사 기념식’이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901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봉창 의사는 1931년 1월 중국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백범 김구 선생이 결성한 한민애국단에 가입한 뒤 이듬해 1월 8일 도쿄 경시청 정문 앞에서 히로히토(裕仁) 일왕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해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과 가능성을 안겨줌으로써 당시 침체일로에 있던 상하이 임시정부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32세의 나이로 순국했으며, 고인의 유해는 백범 김구 선생에 의해 1946년 6월 30일 국내로 봉환돼 효창원에 안장됐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성재 이동휘 선생 순국 82주기 추모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과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성재 이동휘 선생의 서거 82주기 추모식이 1월 31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이동휘 선생은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나 강화도에 보창학교를 설립하고 대한자강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민족주의 교육과 구국계몽운동을 펼쳤으며, 1908년 도산 안창호 선생과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하다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체포돼 인천 무의도에 유배됐다. 이후 러시아 연해주로 옮겨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新韓村)을 중심으로 조직된 권업회(勸業會)에 들어가 이상설, 이갑, 신채호 선생 등과 함께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민족해방 투쟁활동을 했다. 3·1운동 직후 블라디보스톡에서 문창범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가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및 초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몽양 여운형기념관 사태 해결을 위한 항일독립운동가선양단체 연합 기자회견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부영)가 몽양여운형기념관 위탁운영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연합 기자회견을 1월 25일(수)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17개 항일독립운동가선양단체가 함께했다.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는 2011년 11월 1일 양평군과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5년간 몽양여운형기념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6년 12월 갑자기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 위탁 모집 공고를 내고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신원1리 새마을회'를 선정했다. 이에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는 선정된 단체가 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인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을 들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과보고와 이부영 회장의 회견문을 통해 최근 몽양여운형기념관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양평군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여인호 유족대표가 촉구문을 발표하고,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이 권고문을 발표한 후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지지성명을 하였다.

이날 참석하는 항일독립운동가선양단체는 광복회를 비롯해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만해사상연구회,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사)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우사김규식연구회,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사)장준하기념사업회,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17개 단체에 이른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6년 11월, 12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강재욱	20,000	2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 철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창기	200,000		이학노	20,000	2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학효	10,000	10,000
권경업	50,000	50,000	배다지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권영관	10,000	10,000	배상윤	5,000	5,000	이해준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석준	5,000	5,000	이현진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배해원		3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광재	5,000	5,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룡근	10,000	10,000	방인섭	30,000	30,000	임진택	5,000	5,000
김봉현	30,000	30,000	서동희	5,000	5,000	장두원	10,000	10,000
김빛나	10,000	10,000	서봉수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삼웅	20,000	20,000	서흥관	30,000	30,000	장세윤	50,000	
김선군	10,000	10,000	석해진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경숙	10,000	10,000	장채령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전봉성	100,000	
김수옥		300,000	신홍범	10,000	1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심재경	10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승준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상운	50,000	
김영방	10,000	10,000	안재용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영일	10,000	10,000	안병원	15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용수	5,000	5,000	안효진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 위	20,000	20,000	양인선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위현	100,000		염기남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윤수	3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윤영	10,000	1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영빈	5,000	5,000
김은수	10,000	1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용옥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정록	70,000	70,000	원영애	20,000	20,000	조희환	20,000	120,000
김정인	20,000	20,000	유덕곤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종규	10,000	10,000	윤경자	40,000	4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종성	10,000	10,000	윤용환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종숙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최권행	30,000	30,000
김진모	20,000	20,000	윤종준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수희	30,000	30,000
김판수	5,000	5,000	이계환	10,000	1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학근	20,000	20,000	이규중	30,000	30,000	한의석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기자	10,000	10,000	한홍구		12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동진	20,000	2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두엽		50,000	홍범식	20,000	20,000
남만우	50,000	50,000	이두희	30,000	30,000	홍석천	5,000	5,000
노수문	20,000	2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홍윙희	10,000	10,000
노종래	20,000	2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황명하	10,000	10,000
류동연	20,000	20,000	이상훈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양순	20,000	20,000	황인자	30,000	30,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영국	1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동기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인석	10,000	1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종찬	100,000	10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창윤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창중	20,000	20,000			

2016년 11월, 12월 특별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주)오토 오티오	5,000,000	5,000,000
임호경	500,000	
오체안피부과	500,000	
삼양초등학교(6-5)		195,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㉑

전재일과 서대문형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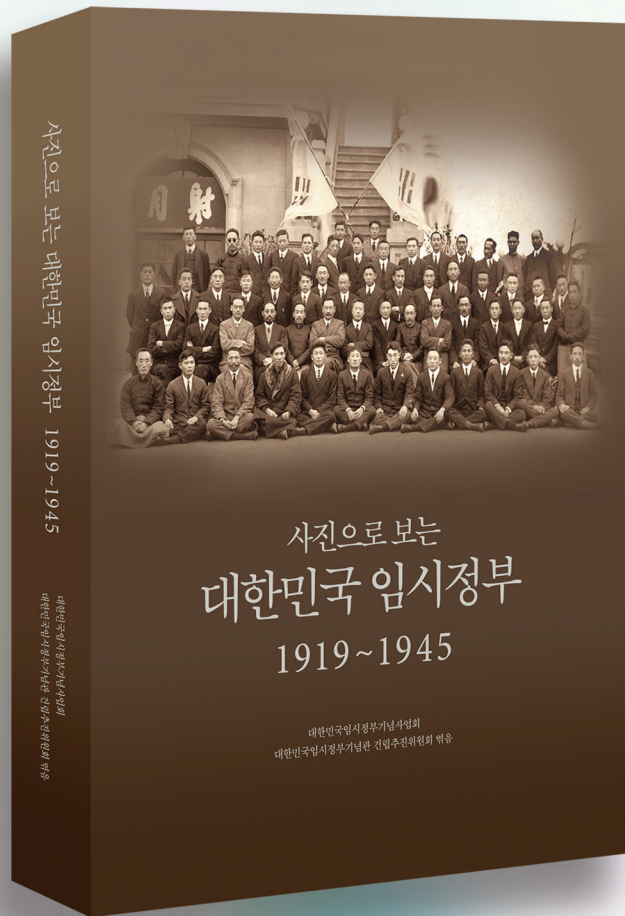
1920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아일보에는 ‘世人(세인)을 驚駭(경해)케한 聯通制(연통제)의 公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시리즈 형태로 6차례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조선의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연통제가 발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원은 모두 47명인데 정치범으로 나흘간 공판이 계속된 큰 사건이기에 연속보도한다고 되어 있다. 공판 분위기는 간수와 순사에 의해 법정에서 들어온 47인은 칠팔일 정도 철창에 있던 까닭에 얼굴에는 혈색이 하나도 없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방청인은 회령, 경성 등지에서 무려 사오백 명이 왔으나 피고들만 간신히 들어가고 간수와 순사가 법정 문밖에서 엄중하게 지키고 있어 함부로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피고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기웃거린다고 되어 있다.

연통제 사건에 연루된 전재일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가족을 이끌고 간도 용정(龍井)으로 망명하여 문화사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용정촌 시위운동에도 참여하였다. 당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사망자 매장 및 부상자 위문 등의 활동을 펼치다 재류금지(在留禁止) 처분을 받고 쫓겨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공판에서 판사는 전재일의 행적에 대해 확인을 하면서 연통제가 어떤 조직인지, 가담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전재일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심문하였다. 보도기사는 전재일 이외에도 리상호, 리운혁, 송관섭, 김동식, 석린제 등 연통제에 관련된 사람들의 공판 기록을 하나씩 나열하여 적고 있다. 연통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조직으로 1919년 설치되었는데, 군자금 수집과 함께 통신업무도 관장하였다. 지부장이었던 전재일은 송윤섭, 리상호, 박두환 등과 함께 함북 연통제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던 중, 1920년 8월 동지 47인과 동시에 체포된 것이다.

8월 31일 동아일보는 공판 종결을 보도하면서 본 사건이 3·1만세운동과 그 취지가 다르지만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고 세상의 주목을 끌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 하고 있다. 특히 일제는 1919년과 비교하면 관공서 직원, 교사와 전도사 등 다양한 지식계급의 참여가 이루어졌기에 총독부의 기강이 위협받은 것으로 인식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공판은 연통제와 관련된 조선인들을 더 체포하기 위해 예심에 부친 것인데 심문과정에서 증거 불충분과 감옥제도의 불완전한 측면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자백을 번복하고 사건의 연관성 부인하는 것 등에 대해 매우 죄질이 나쁘고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이야기 하고 있다. 결국 연통제 관련자들은 모두 십년이내의 형을 구형하였다. 전재일은 공판의 심리가 종결된 지 이틀이 지나서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 제1호 법정에서 윤태선, 이상호와 함께 징역 4년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출옥 후 용정으로 돌아가 육영사업에 전념하였다고 전해진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집 발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목표로 2015년 11월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창립과 동시에 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는
학술회의를 열었고, 사진전
'제국에서 민국으로', 스토리펀딩
'한국사를 지켜라' 등의 사업을 통해
기념관 건립 작업에 국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사진전을 통해 전시하였던 사진들을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진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역임
정가 : 5만원

*사진집 판매수익금 전액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쓰입니다.